

6·25전쟁 중 북한 포로수용소 실태와 국군포로 사망자 유해 발굴 가능성

조 성 훈*

1. 문제 제기
2. 국군포로 규모와 포로수용소
3. 포로대우와 사망자
4. 국군포로 사망자의 유해 발굴 전망

1. 문제 제기

클라크(Mark Clark)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유엔총회의 연설문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한국전쟁 중 공산군 측이 돌려보내지 않는 포로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8년이 걸릴 것인가 하고 자문했다.¹⁾ 그런데 정전 후 50년이 훨씬 지났고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Proposed Speech on Korean Atrocities by General Clark to UNGA", Oct. 16, 1953, Box 25/Record Group 319, National Archives Record Administration, USA(이하 25/319로 줄임), 군사편찬연구소, SN 525, p. 11.

특히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군사실무회담, 이산가족상봉 사업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귀환국군포로들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6·25전쟁의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금년이 6·25전쟁 발발 60주년임을 고려할 때 참전자의 연령이 현재 거의 80세 이상이므로 생존자들의 귀환 문제는 시급하다. 탈북포로 70여 명 가운데 2006년 11월 사망한 조창호 예비역 중위를 비롯해 모두 10여 명이 사망했다. 그러므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북한 측에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미귀환 국군포로 중 북한 억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했거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거나 과거 수용된 적이 있는 포로들도 배려해야 한다. 북한에 억류된 일반 국군포로는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귀환한 북한군 포로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지만,²⁾ 탈출을 시도한 포로들은 북한에서 적대계층이다. 이들을 남한에서의 '비전향 장기수'와 비슷한 처지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한때 북한이 '비전향 장기수'를 줄곧 요구했던 이유와 동일하다. 그러나 북한 측으로서는 이를 가장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전쟁 당시 탈출했거나 휴전 이후 귀환한 포로들로부터 국군 장병 가운데 포로였음이 확인되었으나 결국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덕천전투에서 포로가 된 육군 제8사단 10연대장 고근홍 대령을 비롯해 제7사단 5연대장 박승일 대령, 제6사단 7연대 부연대장 최영수 중령, 제8사단 21연대 3대대장 문용섭 소령 등은 널리 알려진 장교들이다.³⁾ 이들 가운데 같은 수용소에 있었던 귀환포로의 증언에 따르면 박승일 대령은 포로교환이 되기 약 1주일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⁴⁾ 천마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고동훈 중위·한병진 소위·장성택

2) 조성훈, 「한국전 국군포로 실태분석」, 국방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6. 11, 101면.

3) 육사 제8기 동기생회, 『노병들의 증언』, 1992, 760-762면; 박정인,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1990, 225-227면.

4) 『신동아』 「미전향 장기수-在北 국군포로 맞교환 어떻게 볼 것인가」, 1999. 4.

상사 등이나, 영월 출신 채병섭 상사도 수용 중 사라진 후 인민군에 편입되었는지, 탈출했는지 알 수 없다.⁵⁾

이외에 그동안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상은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국군포로들의 유해송환이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로 중단되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지역에서 6·25전쟁 중 미군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다. 미군 유해발굴사업도 아직 사망했던 포로의 유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⁶⁾ 국군포로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하면서 유골을 일부 가져 온 적이 있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남한 지역 유해발굴의 성과를 북한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방침을 밝혀,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후 돌려보내지 않았던 국군포로들의 유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졌다.

본고는 장래 추진될 국군포로 유해발굴 사업의 진전을 위해 북한의 포로정책, 미귀환국군포로 송환방안 등 기존 연구 성과를⁷⁾ 기반으로, 포로수용소의 위치와 수용 중 사망한 포로의 규모,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매장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일반 전사자의 유해와 달리 수용 중 사망한 포로의 규모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발굴과 송환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본고에 이용된 자료는 전쟁 중 탈출한 포로들의 수기, 귀환한 포로들의 회고록을⁸⁾ 비롯해 미군 정보당국의 포로에 대한 인터뷰 보고서(Army Security

5) 오용일, 『천마수용소』 하, 박이정, 2001, 115-117면; 한솔희 증언, 2010.2.17: "This must remain top document" 19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HM 1925~1926.

6)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PMO)과 미군포로 가족 가운데 수용 중 사망한 포로의 매장지를 찾으려고 생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http://www.koreanwar.org/html/korean_war_project_guestbook_3.html).

7)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포로정책 연구」, 『한국근현대사 연구』 6, 1997, 6; 허만호, 「북한역류 한국군포로의 송환: 법리적 판단과 협상론의 한계를 넘어」, 『성곡논총』 29-2, 1998; 이신철, 「6·25남북전쟁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사람』 20, 2003, 12; 조성훈, 「국군포로 문제의 발생과 송환방안 모색」, 『한반도 군비통제』 43, 2008, 6; 제성호,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1999; 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등.

8) 이기봉, 「북괴포로수용소」, 조선일보사, 『전환기의 내막』, 1982; 윌리엄 린드세이 화이트(조영철 역), 『한국전쟁 포로』,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토마스 로저스(이덕형 역),

Center Interview Report) 등이 있다. 여기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국군포로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일부 생존자를 통해서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 생존 미군 포로들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남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 탈출했거나 귀환했던 일부 국군포로들이 결성했던 장백산동지회, 제6사단포로동지회, 한솔회 등은 미처 활성화되기도 전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들의 활동도 거의 중단되었다.⁹⁾

포로수용소 관련 북한 측의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용한 관련 보고서와 회고록 등은 전쟁 중 수집된 첩보이거나 휴전 직후 귀환했거나 1990년대 중엽 이후 탈북한 포로들에 의한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용소별 포로 규모와 사망자 등의 통계나 위치, 사건 일시 등에서는 부정확할 수 있을 것이나, 북한 측의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의 구술 자료는 진실에 다가서는 유용한 방법이다.

2. 국군포로 규모와 포로수용소

(1) 국군포로 규모와 북한군 편입

공산 측이 획득한 포로의 규모에 대한 파악은 이미 휴전협상 당시부터 큰 논란이 있었고, 현재 북한에 억류되었을 포로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도 전제적 요소이나, 수용소 위치와 그 규모를 유추하는데도 기초적인 사안이므로 기존 성과를 재정리하였다.

『압록강 포로수용소』, 해동문화사, 1988; 육본, 『포로수용소』, 1990; 조창호, 『돌아온 사자』, 지호, 1995; 박진홍, 『돌아온 패자』, 역사비평사, 2001; 허재석, 『내 이름은 똥간나 새끼였다』, 원북스, 2008; *EX-POW Bulletin* Mar/Apr 2010; Larry Zellers, *In Enemy In North Korea*,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1;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sixteen personal accounts*, McFarland & Company, 1998; 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St. Martin's Press, 2001, etc.

9) <http://www.koreanwar.org/html/units/pow/camp5.htm>.

그동안 알려진 공산 측의 유엔군의 포로의 수는 전쟁 중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의 보도나, 혹은 김일성이나 박헌영 등의 보고에 따르면 첫 6개월간의 포로 38,500명과 중국군 개입 이후 연합작전을 했던 3개월간 전과 26,868명¹⁰⁾ 더하여, 9개월간 총 65,368명이었다. 유엔군은 휴전협상에서 이를 토대로 공산 측이 억류한 포로의 숫자를 확인하려 하였다.

1951년 12월 포로명단 교부시, 유엔군 측이 제시한 공산포로의 수는 북한군 95,531명, 중국군 20,700명 등 132,474명이었는데 비하여, 그들이 통보한 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수는 국군포로 7,142명과 유엔군포로 4,417명 등 모두 11,599명에 그쳤다. 그런데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1951년 6월 25일 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인민군 총사령부는 한국군 등 유엔군을 598,567명 살상 및 포로로 하였고 그 중에서 포로가 108,157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 측에서 밝힌 최대의 규모로서 중국군 창건 24주년 축하기사와 김일성의 8·15해방 6주년 기념보고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108,000여 명이 돌출된 규모가 아니라 65,368명에 이어 85,428명을 거쳐 일정한 추세를 보인 결과이다.

<표 1> 공산 측 포로관련 발표 종합¹¹⁾

(단위: 명)

기 간	포 로		살상포로 (누계)	비 고
	기간별	누 계		
1950. 6. 25~7. 14	6,544	6,544		국군
1950. 6. 25~12. 25	38,500	38,500	208,200	국군·유엔군
1950. 12. 26~1951. 3. 25	26,868	65,368	325,368	국군·유엔군
1950. 6. 25~1951. 5. 22		85,428	424,697	국군·유엔군
1950. 6. 25~1951. 6. 25	108,157	108,157	598,567	국군·유엔군
1950. 6. 25~1953. 6. 24			989,391	국군·유엔군
1950. 6. 25~1953. 7. 27			1,093,839	1953.7 현재
1950. 6. 25~1953. 7. 27			1,567,128	1993.7 현재

10) 『로동신문』 1951. 4. 9.

11) 조성훈, 「국군포로 문제의 발생과 송환방안 모색」, 82면.

그런데 중국군의 전과 가운데 포로규모는 1950년 10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 37,532명을 포함하여 총 46,088명이었다.¹²⁾ 또한 최근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수집한 구소련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6·25전쟁 3년간 국군포로 41,350명, 미군 등 14,450명 총 55,800명이라고 정리되어 있다.¹³⁾ 이처럼 북한 측에서 발표한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 측 자료와 차이가 있어서 전쟁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과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자료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군 자료의 경우는 북한군을 포함한 전체 전과를 포괄하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규모는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한 측과 미귀환포로 문제나 수용 중 사망한 포로의 유해발굴 사업 등을 논의할 때 포로의 숫자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전쟁 중 공산 측은 유엔군 측이 사상자, 포로 등의 통계를 너무 축소해서 발표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¹⁴⁾

전쟁 초기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에 따라 후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국군 당국이 포로와 실종자 통계를 미처 정리하지 못해서 그 통계는 다양하다.¹⁵⁾ 1951년 12월 북한군의 포로명단 교부 후, 유엔군 측은 당시 한국군 88,000명과 유엔군 11,500명 등 총 99,500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제시하여 반박하였다.¹⁶⁾ 그러나 당시 국군의 실종자 규모는 실종처리 후 복귀된 장병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장되었다. 즉 1951년 12월 국군 실종자는 88,000명으로 정리되었지만, 1952년 10월 현재 국군 사상자 통계에 의

12)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소 편(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세경사, 1991, 392면.

13) 심현용 편, 『6·25전쟁 연구경향 및 자료해제』, 군사편찬연구소, 2009, p. 410.

14) 박일우,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과의 공동작전」, 평양, 조선로동출판사, 1951,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XII, 1991, 614-615면.

15) 1997년 10월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추가로 확인된 인원을 포함하여 실종자 규모를 41,971명으로 정리했다. 이 중 전사처리한 22,562명을 제외하고 본적 및 주소지 불명, 연고자와 유족도 없고 실종 및 사망과 행방불명 사유 등이 불명확한 19,409명을 '6·25참전행불자(실종자)'로 정리했다.

16) "CINCFE Tokyo to DA WASH DC for JCS", Dec. 24, 1951, 1/218; 「국무부에서 포로문제 논의」 1952. 7. 25, 군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2, 1995, pp. 260-261;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인생』, 중앙일보사, 1993, 73면.

하면, 포로가 포함된 실종자는 62,414명에 그쳤다.¹⁷⁾ 그 후 1953년 7월 휴전 직전 미군이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국군의 실종자와 포로는 대략 73,799명이었다. 1953년 8월 7일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는 국군포로와 실종자 수를 82,318명으로 정리했다.¹⁸⁾ 이는 정규군 중심이기 때문에 유격대원, 군속, 노무자, 경찰 등이 포함되면 그 규모가 늘어난다.

그런데 공산군 측은 포로를 이용하여 정보획득이나 선전을 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군으로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시켰으므로, 국군포로들은 수용소에 모두 수용되어 있지 않았고 송환을 위한 포로명단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 1950년 7월 23일 모 포로수용소에서 김동춘·이동인·김전중 등은 포로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지난날의 죄과를 뉘우치면서 전쟁에 참가하여 싸울 것을 결의하였고, 국군 제7사단 8연대의 김현옥도 "인민군이 되었다"는 전단지에 등장했다.¹⁹⁾ 최근 중국에서도 중국군과 북한군은 포로석방을 선택하든지 남한 포로를 설득하여 북한에 참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쟁포로의 수는 매우 적었다고²⁰⁾ 인정했다.

북한군에 편입된 국군포로의 규모는 북한 측이 전체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어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 북한 언론과 선전전단에서 국군포로의 편입규모로 수천 명씩 언급되었다. 이미 1950년 7월 초 "국방군으로부터 인민군과 빨치산에 넘어 온 수천의 병사들로 인민의용군을 조직하여 인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의 투항을 권고하는 선전배라에서도 전쟁 전에 월북한 강태무·표무원 외에도 최일명·조학봉 등 70여 명의 장교와 '수천 명'(필자 강조)의 사병들이 인민군대의 장병으로서 전쟁에 참가하고 있고, 이들이 전쟁과정에서 승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훈장을 받았다고

17) "Statistics Pertaining to Combat in Korea", Jan 6, 1953, 47/319, 군사편찬연구소, SN 1620.

18) 조성훈, 「국군포로 문제의 발생과 송환방안 모색」, 84-85면.

19) 「저주로운 과거를 청산하고 조국과 인민에 복무할 것을 맹세」, 『로동신문』 1950. 7. 29 : 제8사단 정보처, 「적의 빼라철」, 1952. 5,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No. 66-2.

20) 吳少京,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육군본부, 2005, 115면.

선전하였다.²¹⁾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군 제27사단 14연대 1대대 1중대의 사병 가운데 33%가 전 한국군이였다. 북한군 선전전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포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있다. 영원·덕천에서 포로가 된 국군 1,580명 중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포로 620명은 석방했고, 332명은 각자 희망대로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보냈으며 628명은 인민군에 입대했다고 선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군포로 중 약 40%가 정규군에 입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²⁾

전쟁이 교착되면서 포로들은 정규군보다 노동부대에 투입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이유는 전선에 배치된 '해방전사'들의 잦은 탈출과 낮은 사기 때문이었다. 포로가 편입된 건설부대는 2개 비행장 건설대대 비행장건설노동연대 1개 철도건설연대 3개 독립건설연대 등을 비롯해²³⁾ 북한군 제502부대, 제218부대, 제22여단, 후방총국, 내무성시설대 등이다. 포로들은 모두 인민군 복장과 계급장으로 위장했다. 그 이유는 미군이 공중촬영을 하더라도 포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수용소에서는 보급이 부족하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건강한 포로들은 작업에 자원하기도 하였다. 평양에서 230명이 피복 및 구두공장에 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황해도 백천(YD219991) 750명, 해창리(YC230684)에 2,300명, 평양 승호리에 3,730명, 순천 900명 등 그 규모가 거의 1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²⁴⁾

전쟁으로 평양·해주·원산·청진·남포 등의 공장, 주택 등이 크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정부는 이미 전쟁 시기부터 복구사업을 서둘렀고 1954~1956년까지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총생산액

21) 『민주조선』 1951. 3. 12 : 『로동신문』 1951년 12월 6일자 사설 : 『국민보』 1952. 2. 27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된 생활을 시작할 날은 당신들에게도 돌아왔다(날짜없음), SN 896.

22) 조성훈, 「국군포로 문제의 발생과 송환방안 모색」, 99면.

23)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2, 군사편찬연구소, 2001, 59-65면.

24) CCRA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pril-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67-1971.

을 1953년에 비해 2.6배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석탄생산의 경우, 1956년에는 400만 톤으로 늘리려고 했다. 이 규모는 1953년에 비해 5.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기간 동안 각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무원 수는 기준년도에 비해 1.5배로 늘리려고 했다.²⁵⁾ 이 시기에 포로들은 전후복구건설 부문과 탄광 등지에 배치되었다.

〈표 2〉 북한 억류포로 직장 배치현황(1953)

(단위 : 명)

내 무 성 건 설 대		최초 수용인원
1701부대	아오지탄광(613탄광, 함북 은덕)	400-600
	아오지탄광(오봉탄광, 함북 은덕)	100
1702부대	학포탄광(함북회령, 세천노동자 지구)	500-625
1703부대	성흥광산(평남 회창군)	300
1704부대	성천광산(평남 성천)	500
1706부대	하면탄광(함북 셋별) ²⁶⁾	400-800
1707, 1708부대	검덕광산(함남 단천)	1,000 ²⁷⁾
	용양광산(함남 단천)	120
1709부대	고건원탄광(함북 셋별)	550-1,000 ²⁸⁾

노동부대와 내무성 건설대에 편성된 경우, 신체허약자를 제외하고는 〈표 2〉처럼 휴전 직후 대부분 내무성건설대 1701-1709부대에 편성되었다. 예를 들어 1953년 7월 25일경, 강원도 화천지구 전투시 피포된 최모는 강동 포로수용소를 거쳐, 1953년 9월부터 1954년 8월 1일까지 함북 은덕군 오봉탄광에 배치되었다가 내무성 건설대 1701부대 1중대에 편입되면서, “여러분들

25) 김일성, 「전후 복구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1954. 9. 10, 『김일성저작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01-105면.

26) 후에 온성탄광으로 100명, 상화탄광으로 200명이 이동했다고 한다.

27) 2,000명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다.

28) 고건원탄광에 배치된 포로 가운데 60%를 장교 출신이 차지했다고 한다. 포로의 규모를 600명 정도로 기억한 경우도 있다(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83면).

은 포로가 아니라 건설대 대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각 부대는 5개 중대로 구성된 대대규모로, 평양에 소재한 내무성 제 2201군부대의 통제를 받았다.²⁹⁾ 이외에 비행장, 군항과 해안방어시설, 군사 교량과 도로, 갯도 등 군사기지 시설을 복구하고 새로 건설했던 ‘군사건설국’에도 국군포로들이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국군포로들이 황해도 배천군 금성리 협동농장에서처럼 1~2명의 포로들이 흠어져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서,³⁰⁾ 휴전 후에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2) 포로수용소 위치

전쟁 당시 유엔군이 공산포로를 수용하였던 수용소는 부산·거제도·제주도 등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공산 측의 포로수용소 가운데 국군을 수용한 곳이 만포 부근이고 유엔군을 수용한 곳이 벽동이었다³¹⁾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위치부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쟁의 추세에 따라 북한 측의 포로수용소는 폐쇄되거나 이전 혹은 신설되는 등 위치가 바뀌었고 규모가 달라졌다.

공산 측은 국제적십자사에 포로규모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거부했다. 유엔군 사령관은 1950년 7월 18일 비에리(Frederick Bieri)를 국제적십자사의 남한지역 대표로 인정하여 각지의 수용소를 감시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에게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하였다.³²⁾ 그런데 공산 측은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주의와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³³⁾

29) 제202부대라고 기억하는 증언도 있다(‘국군포로’, 47년 만에 만났다, SBS, 1999. 3. 26).

30) 허재석(귀환포로) 부인 증언, 2006. 10. 9.

31) 배동걸, 『북한포로수용소를 찾아서』, 영창 원색출판, 1962, 13면.

32) “SCAP Tokyo to Sec State” 1950.7.23, 17/338.

33)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유엔군 총사령관 릿지웨이 앞』, 1951. 12. 24, 『조선중앙년감』, 1951-52, 227면.

1951년 12월 포로명단 교부시, 공산 측으로부터 국군포로 7,142명이 수용된 수용소가 명시된 명단을 받았다. 이때 국군포로수용소로 언급된 수용소는 제7, 8, 9, 10, 11수용소에 불과한 것으로³⁴⁾ 수용소별로 배치된 인원은 제7수용소 831명, 제8수용소 1,591명, 제9수용소 1,528명, 제10수용소 2,235명, 제11수용소 957명 등이었다. 이처럼 북한 측이 국군포로의 규모를 크게 축소하면서 수용소의 숫자와 각 규모에 대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포로위문을 하기 위해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의 적십자사 대표가 각각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1953년 7월 말 회의에서 북한 적십자사 대표 장익이 송환될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국군과 유엔군포로수용소 14곳과 강계에 있는 병원수용소에 대해 언급했다. 이때 처음으로 국군과 유엔군포로수용소의 위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다. 국군포로는 대부분 의주 인근의 천마, 강계, 만포 등지에 위치해 있었다.³⁵⁾ 공산 측이 판문점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한 것에 따르면, 만포에 7개 수용소와 약 6,000명의 포로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적십자사 대표인 코론(Gerald Coron)이 각 수용소에 있는 포로의 수, 수용소 위치 등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거절하였다.³⁶⁾ 부상병을 포함한 국군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벽동, 화풍, 천마, 우시, 외귀(外貴), 만포진, 삭주, 북진(北鎭), 강동, 황주 등이 알려졌다.³⁷⁾

전쟁 중 전체 포로규모와 사망자·북한군 편입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용소와 포로의 행방을 추적하는 방법은 북한수용소에서 탈출한 포로들의 진술, 병상포로와 휴전 후 돌아온 포로들의 증언이다. 그리고 전쟁 중 미군 통제 아래 첩보부대에서 각 수용소별 규모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

34) 「포로의제에 관한 참모장교회의 부록」 1952. 1. 24, 『남북한관계사료집』 7, 1994, 16면.

35) 유엔군사정전위원회 본부, 「제2차 합동적십자사 회의」, 1953. 7. 31, 8/333, 군사편찬연구소, SN 1918(4)-1.

36) The joint red cross teams in Korea, "The draft of the POW report", 28 Jan. 1954, p. 17, p. 21, 3/389.

37)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3, 1983, 298면.

미군은 전쟁 당시 북한에 있는 국군 및 유엔군포로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귀환한 포로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제302군사정보대(MISD), 제6004공군첩보부대(AISS), 연합정찰사령부(CCRAK) 등을 통해 수용소 위치와 포로규모를 계속 추적했다.³⁸⁾ 북한 측은 국군포로들을 수용소 외에 학교, 공장 등지에 포로 표지도 없이 임의로 수용시켰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한 추적은 제한적이었다. 북한군은 포로들을 수용소에 모두 수용하지 않고, 노동부대나 일반주민으로 편입시킨 후 포로수용소를 폐쇄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1951년 11월 2일 미 극동군사령부는 북한 지역에 30~35개의 포로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외에 18개 수용소는 만주를 비롯한 중국지역에 있을 것이며, 이 가운데 12개를 영구수용소로 추정하였다.³⁹⁾ 포로명단이 교환된 직후에도 미군은 북한에 있는 29개 수용소 가운데 11개 수용소의 포로들만 등재하였을 뿐이고, 만주를 비롯한 중국에 있는 최소한 18곳의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이 탈락되어 미군포로 가운데 40~50%는 만주 등지로 보내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⁴⁰⁾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시기에 일시적으로 만주지역으로 이송한 경우 외에 포로수용소는⁴¹⁾ 북한 내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휴전 후 귀환포로로부터 확보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지역에 있었던 주요 포로수용소는 다음과 같다. 제1수용소는 창성군 창리에 위치하여 동남쪽

38) CCRA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pril-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67-1971 :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ch 4,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39) "CINCFE Tokyo to DA, WASH", Dec. 30, 1951,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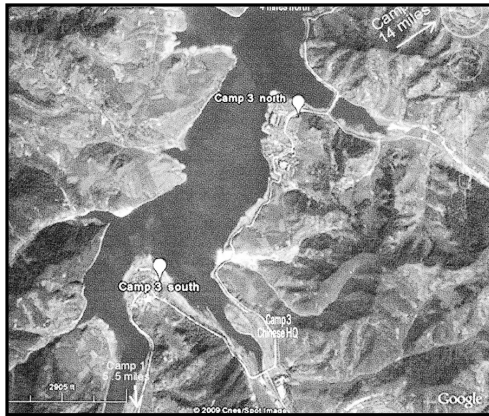
40) "JCS to CINCFE Tokyo", Dec 20, 1951, 1/218.

41) 국군포로 가운데 일부가 구 소련 시베리아강제노동수용소로 이송되었다는 설은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조성훈, 「6·25전쟁중 국군포로의 소련이송 관련 연구」, 2009. 6, 국방부 정책과제연구보고서). 북한지역에서 이송된 경우 외에도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PMO)에서 미군 실종자를 추적하던 중 구 소련문서에서 발견된 양옥석(Yang Ok Sok) 상사는 1951년 4월 30일 선전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원산 남쪽 50마일에서 수송기(C-47)가 추락하여 미군 승무원과 함께 포로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DPMO, "Next of Kin Notification: MSgt Ok Sok Yang" April 15, 2008). 그는 휴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지역에 미군 등 유엔군 포로 장교와 부사관 400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북서쪽에 사병 300명이 수용되었다.⁴²⁾ 제1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엔군포로의 규모로 400명, 800명, 혹은 1,300명까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첩보를 수집했으나, 1953년 8월 한국과 국제적십자사 대표가 이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미군 841명 영국군 616명 등 총 1,457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⁴³⁾

제2수용소는 우시군 평장리, 충만강 인근 충하동, 상동 등 4곳에 나누어 있었다. 평장리에는 미군 포로 약 400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상동에는 주로 미 공군 장교 150여 명이 있었다.⁴⁴⁾ 제3수용소는 <지도 1>과 같이 1951년 8월경 벽동수용소의 남서쪽으로 약 14마일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으며, 포로의 규모는 약 1,000명이었다. 제4수용소는 위원강 북쪽 구읍동에 위치했으며 포로 규모는 600명 정도였다. 귀환포로의 증언에 따르면 1952년 8월 미군 부사관 출신포로 400명이 이곳으로 이송되었다.⁴⁵⁾

<지도 1> 제3수용소 위치



42)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5: Charles W. Sherron, Jr. M/Sgt" May 18, 1954, Bx 7/ RG 319;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sixteen personal accounts* McFarland & Company, 1998, p.165.

43) 배동걸, 『북한포로수용소를 찾아서』, 59-61면.

44)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62: Alarich L. E. Zacherle, Lt. Col" June 11, 1954, Bx 1027/ RG 319;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pp.166-167.

45)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5: Frank J. Page, Sgt" June 1, 1954, Bx 7/ RG 319;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p.168; John N. Powers, "American POWs in Korea", *EX-POW Bulletin* Mar./Apr. 2010.

벽동수용소로 널리 알려진 제5수용소는 평안북도 벽동읍에서 남쪽으로 약 8km를 남하하다가 우측 계곡의 화전민 농가에 국군포로들이 수용되었고 좌측에는 미군 포로수용소가 있었다. 그 길이는 1.6km이고 폭은 0.8km 규모였다. 중국군은 그들의 제1차 공세 후 국군과 유엔군포로가 많이 발생하자, 보위부장 楊霖을 후방으로 파견해 수용소 부지를 물색하여 중국과 북한의 변경지대이고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벽동지역을 선정했다.⁴⁶⁾ 처음에는 북한군이 관리하다가, 1951년 3월부터 중국군이 완전 장악했다. 1951년 1월 중순경 설치되었을 때 포로의 규모는 약 3,000명에 이르러 75개 막사(compounds)로 나뉘어졌다. 이곳에는 1951년 2월경 국군포로도 2,500여 명이 수용되었다. 초등학교에는 미군포로들이 수용되었고, 국군포로들은 민가에 분산 수용되었다.⁴⁷⁾ 그해 7월 이들 가운데 릴스(William Lilles) 하사, 서더랜드(Jack Sutherland) 상사 등 저항적인 포로들은 제3수용소로 이송시켰고, 장교들도 벽동 북동쪽 48km 떨어진 제2수용소로 이동시켜 1,800명으로 줄어들었다.⁴⁸⁾ 벽동수용소 인근에는 공산 측에 잔류하려던 유엔군 포로 약 150명을 따로 수용하였다.⁴⁹⁾

제6수용소는 인근에 폭 60~70미터의 강이 있었다. 70개 동 건물에 국군포로 약 700~800명과 민간인 200명도 수용되어 있었다고 했다. 수용소에는 20병상 정도의 의무실이 있었지만 중국 의사들은 의약품이 없어서 충분히 진료할 수 없었다.⁵⁰⁾

제7수용소는 천마광산 입구(XE655435)로부터 2km 남서쪽 지대에 설치되어 한 때 2,700명이 수용되었으나, 포로의 이동이 잦아 평균 1,000명이 수용되었다. 1953년 7월 송환될 무렵 장교 출신 120명, 사병 출신 포로

46) 杜平, 『在志願軍總部』, 해방군출판사, 1989, 484면.

47)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3, 304면; 박정인, 『풍운의 별』, 227면; 오용일, 『천마수용소』 하, 49-50면; 박진홍, 『돌아온 패자』, 81면.

48)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6: Richard T. Artesani Jr, M/Sgt" July 9, 1954, 7/319.

49) The JJIPB, "UN Personnel received and processed by the JJIPB" Aug.-Oct. 1953, 24/319, p.18.

50)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송영철, 1953.9.26, No. 30-2-1/338; 이동규 1953.9.26, No. 30-2-1/338.

75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⁵¹⁾

강동 제8수용소는 평안남도 승호리 탄광에 있어서, 초기에는 탄광지대 골짜기를 따라 동굴이 수용소 시설로 이용되었다. 후에 20개 동의 목조건물에 국군포로 1,000명이 수용되어 있었고,⁵²⁾ 영국군 포로도 따로 있었다. 그런데 1952년 1월 14일 공산 측은 미군 폭격에 의한 포로들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할 때 강동포로수용소에 국군포로 155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말했다.⁵³⁾

만포진(BA7259)에 있는 제9수용소는 1953년 2월 국군포로 1,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⁵⁴⁾ 미군들은 북진수용소를 제11수용소로 기억했으며, 이곳에 국군포로 3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⁵⁵⁾

제12수용소는 채동리(BU606736)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포로의 규모는 많을 때 1,000명 정도 수용되었다. 1952년 12월경 제12수용소는 제9수용소로 재조정되었다.⁵⁶⁾ 제12수용소는 선전센터로 이용되었고 인근에 공산 측에 협력한 포로들이 수용된 ‘중앙평화위원회(the Central Peace Committee)’ 수용소가 있었다.⁵⁷⁾

51)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이성덕 소위, 1953.9.26, 36-1/338;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김종수 중령, 1953. 10. 12, 36-1/338.

52) 박진홍, 『돌아온 패자』, 70면;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박수조, 1953.4.26, 군사편찬연구소, No. 30-1. 국군포로의 규모만 2,000명이었다고 주장한 포로도 있었고, 1951년 6월 하순 포로규모가 3,500명이었다고 기억한 포로도 있고(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Mil # 6765, Pfc” March 5, 1954, 31/338; 육군본부, 『포로수용소』, 67면).

53) 『동아일보』 1952. 1. 17.

54)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장세호, 36-1/338.

55)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Mil # 2825, Civ”, No. 30-2-1/ 338: <http://www.koreanwar.org/html/units/pow/camp11.htm>. 신창균은 제11수용소가 만포진 시중면에 있었고, 국군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기억했다(신창균, 『북한 11포로수용 생활수기』, 2004. 4. 8).

56)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김영규, 1953.5.28, No. 30-1/338.

57) 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pp. 40-41.

이러한 주요 수용소를 포함해 미군이 첩보팀과 귀환한 부상병 등을 통해 1953년 8월 현재 파악한 36개소의 수용소 위치는 <표 3>과 같다. 미군 첩보당국에서 포로수용소의 위치를 확인했어도 포로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규모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1953년 8월 1일 현재 최소 약 15,000명 이상으로부터 최대 23,000명이 수용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문서에서는 국군포로만 23,000여 명이라는 분석도 있다.⁵⁸⁾ 이러한 포로 규모는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었지만, 북한 측이 송환한 포로규모가 실제 포로가 된 인원과 크게 차이가 났으므로 돌아오지 못한 포로를 추적하는 데에 여전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포로수용소로 유엔군 2,000명이⁵⁹⁾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계수용소(BA975375), 한국군 300명이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령수용소 등 24곳을 추적하였다. 귀환포로의 증언에 따르면, 회령수용소에는 1950년 8월경 경찰 포로 30명을 포함해서 아군 포로 700~8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⁶⁰⁾

58) 8007th Army Unit, "CCRAK Summary of Accepted NK PW Camps" Aug. 1, 1953, CCRA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pril-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71; "This must remain top document" 1953, 군사편찬연구소, HM 1926. 미 극동군 사령부에서는 1951년 10월 하순에 공산 측에 잡혀 있을 포로의 수가 미군 등 6,000명과 한국군 28,000명이라고 추산한 적도 있었다(Army Intelligence Project Decimal File, 1951-1952, RG 319/47, SN 1620;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Staff Study Relating to Voluntary Repatriation" Feb. 19, 1952, Tab c, 126/319).

59) 강계수용소에서도 3,000명 가운데 굶어죽거나 발진티푸스 등으로 2,000명이 사망했다는 회고도 있다(최춘영, 「상좌 동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월간조선』 2000. 8, 604면).

60) 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70면.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규모를 1,500명 수준으로 기억하는 포로도 있고, 손창수 일병·백덕기 일병 등 국군 포로 3,000명 수용되었다는 증언도 있다(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74면; 이우학(귀환 포로) 증언, 1994. 11).

〈표 3〉 포로수용소 위치와 포로 규모(1953.8.1) (단위: 명)

구 분	위 치	국 적	규 모	비 고
1. 수용소: 임산동	XE875799, XE879795	유엔군 (흑인 포함)	800	창성수용소로 알려짐
2	평외동	유엔군	200	공산 측, 1951년 12월 16일 첫 보고
	충하동	미군 등	135	공산 측, 1952년 10월 31일 보고
	창리	미 공군	100	공산 측, 1952년 10월 31일 보고
3	신평동	미군 등	800	
	송사동	유엔군	213	공산 측, 1952년 10월 21일 보고
4. 구읍동 (위원)	BA499304	미군 등	700-800	공산 측, 1952년 10월 31일 보고
5. 벽동	YE059995 YE064991	유엔군	미군 500-600 기타 유엔군 500	공산 측, 1951년 12월 16일 보고
6. 우하동	YF253059	국군	1,000	
7. 부상리	XE637448	유엔군 국군	유엔군 장교 30 국군 600	공산 측, 1952년 7월 17일 제10수 용소로 보고
8. 당하리	XE635484	유엔군 국군	미군 200 영국군 200 국군 1,600	북한 측 언론, 제10수용소 보도
9. 풍룡동	BA769375	국군 등	국군 143	
10. 자성	CA032915	국군	1,000-1,800	
11. 구중동	BA997830	불명	불명	1953년 3월 24일 설치
12. 견하동 (외귀)	BA777558	미군 국군	미군 500 국군 1,000	
13. 삼고동	BA824509	국군	400	
14. 중리	YD353389	불명	불명	1952년 10월 보고
15. 임시수용소 (입송리, 직동, 강동)	YD553233 YD553234	국군	300-3,000	강동 제8수용소로부터 일부 조정
16. 병원수용소	BA688568	환자	250	
17. 포로수집소 (속달리)	BU787055	미군, 터키, 국군	10-150 50 180-200	1952년 1월 첫 보고

구 분	위 치	국 적	규 모	비 고
18. (판독불가)	BA789508	국군	700	1953년 1월 30일 설치
19. 개성	BT855046	미군, 국군	1,000	
20. 채동리	BU596760	국군	1,000	1952년 9월 26일 첫 보고
21. 삼풍	CA90070	국군	800	1953년 1월 25일 설치
22. 신창리동	CA572739	국군	600	
23. 아오지동	FO1508	국군 등	1,500	1950년 9월 이후, 보고
24. 상흥리	XE538355	국군	불명	1953년 2월 15일 설치
25. 신명동	XE651745	국군	800	
26. 사리원	YC305653	국군 등	250	
27. 안주 석탄광산	YD118734	국군	500	
28. 안주	YD282872	국군	300-500	
29. 가송리	YD310892	국군	500	1952년 9월 첫 보고
30. 소포	YD362302	국군 장교	140-400	1952년 10월 첫 보고
31. 소송리	YD369222	국군	150-1,000	
32. 대타령리	YD353233	국군	570	
33. 옥송동 금광	YD397753	국군	700-1,000	
34. 판원리	YD415368	미 공군 유엔군 국군	24-30 34 150	
35. 자산	YD5159	국군	불명	귀환 부상병 진술
36. 마삼리	YD555277	국군	300	

3. 포로대우와 사망자

(1) 후방으로 이동과정 중 사망 장소

북한군은 전쟁 시기 포로를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 대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군이 북한군의 포로학대를 주장하자, 스탈린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군이 포로에 대하여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미군의 포로 학대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포로 중에서 선발하여 방송을 통해 포로대우가 양호하다는 것을 말하도록 지시했다.⁶¹⁾ 그러나 포로우대 선전과 달리 전선에서 북한군에 포로가 되면 구타는 물론 살해될 위험이 있었다.

전쟁 초기 전선부대에서 국군과 유엔군포로는 북한군에 의해서 적대적으로 처리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1950년 6월 28일경 북한군은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던 국군 부상병 150여 명을 살해한 사실이 있었다.⁶²⁾ 1950년 8월 12일 포로가 된 허모는 북한군 제5사단 12연대 부대원들이 영덕전투에서 붙잡은 국군포로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⁶³⁾

이러한 포로학대를 줄이기 위해 1950년 7월 16일 인민군 문화부대에서 전사, 하사, 군관들이 적에 대한 경각심과 증오심으로 전투 중 포로취급에서 과오를 범함으로써 적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와해시키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투항하는 적들은 반드시 포로로 할 것이며 그들을 함부로 살상하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했다. 또한 부상한 포로는 반드시 치료해주며 포로를 모욕하거나 무기와 탄약 외에 개인물품을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⁶⁴⁾

61) 『조선인민군』 1950. 7. 15; 『로동신문』 1950. 7. 20, 28면.

62) 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HQ Korean Communication Zone, "Legal Analysis of Korean War Crimes Case No. 36", June 14,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215.

63) "ATIS Interrogation Report No. 605" Aug. 19, 1950, 『남북한관계사료집』 21, 1996, 42면.

64) 문화부대장, 「지령: 적군와해공작 및 포로취급에 대하여 1950. 7. 16, 『해방직후 극비자료』 6, 고려서림, 1998, 33면; 「북한군 포로신문보고서」, 『남북한관계사료집』 25, 군사편찬위원회, 1996, 93면.

이러한 포로대우 조치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은 기존 연구성과에 미루고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북한지역에서 희생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포로의 후송과정은 두 가지 경우였다. 전선에서 포로가 된 후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포로수용소에서 작업현장으로, 혹은 포로의 규모를 위장하기 위해 수용소에서 수용소로 잦은 이동이 있었다. 유엔군포로들은 전선부대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심문을 하지 말고 즉시 이송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1951년 4월 북한군 제12사단 8중대에서 생포한 미군 40여 명을 그날로 상급기관에 압송했다.⁶⁵⁾ 특히 전자의 이송과정에서 많은 포로들이 희생되었다.

북한군이 승리하고 있는 초기에는 후송과정에서 희생되는 경우가 없었지만,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할 때와 중국군 개입 이후 아군 포로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때 포로들은 후방으로 이동 중 부상악화, 질병, 기아, 혹한, 북한군의 살해 등으로 사망했다. 이 때문에 국군포로들은 북한군에게 넘어가면 죽는 줄 알고, 중국군에게 자신들을 감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⁶⁶⁾ 북한 유격대를 비롯한 북한군의 포로살해에 대해, 중국군은 포로를 살해하지 말라고 말리는 형편이었다.⁶⁷⁾

전쟁 초기에 상대적으로 나왔던 포로대우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10월부터 급격히 나빠졌다. 아군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유엔군의 추격을 피해 살해하는 사례가 늘었다. 1950년 10월 20일 북한 내 무성 보안군 316부대는 순천 북쪽 10마일 터널에서 평양으로부터 이송된 미군 부상병 76명을 살해했다.⁶⁸⁾

특히 1950~1951년 겨울에 붙잡힌 포로들은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도 도보로 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견고

65) 동북군정대학길림분교교사연구회 편, 『광휘적족적』, 연변인민출판사, 2006, 441-442면.

66) 『押解俘虜的路上』, 中國人民解放軍75200部隊政治部編, 『浴血朝鮮』, 解放軍出版社, 2001, 138-139면.

67) "Prisoner of War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 Pak, Chol won", Nov. 19, 1950, 군사편찬연구소, HC 1810.

68) "KWC No. 76", 897/153.

걷는 이 과정에서 국군과 유엔군포로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이질, 폐렴 등으로 죽거나 명령불복종이나 낙오 혹은 탈출을 시도하여 살해되기도 하였다. 포로들은 대개 30명씩 한 조로 편성되어 북으로 이동했다. 혹한 속에 한 조가 된 국군포로 30명은 날이 갈수록 굶어죽거나 얼어 죽거나 총살을 당해 매일 줄어들어 어떤 조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⁶⁹⁾ 포로가 된 유엔군 공군조종사들은 여름 비행복으로 11월의 매서운 바람을 견뎌내야 했다.⁷⁰⁾ 1953년 4월 21일 부상포로 교환시 귀환했던 모랜드 이등병은 700명의 미군포로가 도보로 행군을 시작하였으나 1개월에 걸쳐 수용소에 도착하였을 때는 28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이 행군은 ‘죽음의 행군(death march)’으로 널리 알려졌다. 미군 당국은 미군포로의 희생비율이 한때 50%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⁷¹⁾ 이 과정에서 희생된 포로들은 제대로 매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유해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포로들이 희생된 데에는 대개 북한군에게 책임이 있지만, 중국군도 포로를 살해한 적이 있었다. 탈북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1950년 11월 25일 국군포로 2,000여 명이 4일간 걸어서 강계 인가리포로수용소로 이동하는 중 한 장교 출신 포로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반항하자 중국군이 사살했다고 한다. 1951년 4월 10일, 중국군 제65군 산하 부대가 연천지역에서 32명의 터키군을 포로로 잡은 후, 부상자 7명은 살해하고, 나머지는 후송하였다. 또한 벽동포로수용소에서 미군포로가 중국군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한 경우도 있어, 전쟁 중 전체 전범행위에 의한 희생자 가운데 10%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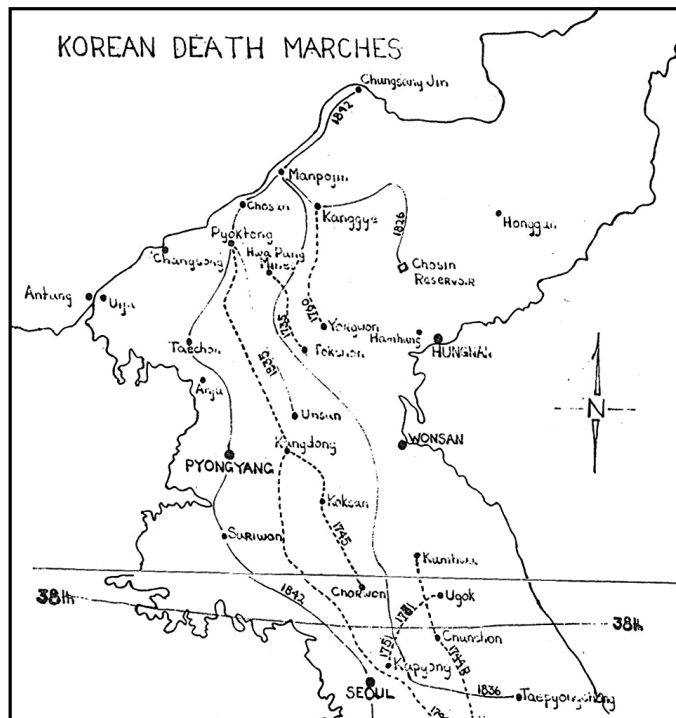
69) 최춘영, 「상좌 동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월간조선』 2000. 8, 597면.

70) 안소니 파라-호커리(김영일 역),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291-293면.

71) 『서울신문』 1953. 4. 25. 라종일, 『끝나지 않은 전쟁』, 전예원, 1994, 234면; 「한국전쟁 중 유엔군 포로에 대한 북한군과 중국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문제에 관한 미국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 보내는 서한」, 1953. 11. 26, 35/319 Korean War Atrocities: Richard M. Bassett with Lewis H. Carlson, And the Wind Blew Cold, The Kent State Univ. Press, p.x: “POW Journal of Louis Harris, Camp # 1 at Chungson, North Korea”(www.koreanwar.org/html/units/frontline/harris-pow.htm, 2006. 9. 18 열람).

중국군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다.⁷²⁾

〈지도 2〉 죽음의 행군 경로



임시수용소는 자연 동굴·광산 갱혈·민가 등으로 좁은 공간에 많은 포로를 수용하여 급식이나 의료지원이 개선되지 않았다. 많은 포로가 사망하여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광산수용소는 제5수용소에서 80km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미군, 터키군 및 한국군 등 약 1,600명의 포로가 분리되지 않은 채 관리되었다. ‘죽음의 계곡 수용소’에서 1950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매일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72) 박진홍, 『돌아온 패자』, 46-47면; War Crime Section Commission, Judge Advocate Section, KCOMZ, “Final Historical and Operational Report” May 31, 1954, 10/319;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p. 166-167.

하여 그 희생자가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900명에 이르렀다. 그 원인은 치료부족, 영양결핍, 설사와 폐렴 등이었다.⁷³⁾ 이 시기의 매장지는 수용소 인근의 골짜기였다.

벽동 임시수용소에서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2월 사이에 포로 30여 명 중 10여 명이 열병 등으로 사망했고, 화풍광산 수용소에서도 국군포로 1,000여 명 가운데 2개월 동안 영양결핍과 발진티푸스 등으로 200~400명이 사망하였다.⁷⁴⁾ 이후에도 이러한 희생은 계속되었다. 1951년 4월 포로가 되어 후방으로 이동되는 과정에 수수밥에 소금, 삶은 콩, 미숫가루 등을 하루에 1번밖에 주지 않아 약 20명이 굶어죽었고, 5월 하순에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20~30명씩 죽었다고 한다.⁷⁵⁾

공산 측에 의해 포로와 민간인의 학살 등이 보고됨에 따라, 미군은 1950년 8월 19일 맥아더 장군이 공산군의 전범사실에 대해 김일성과 그 사령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경고를 하였고, 1950년 10월 초 미 제8군 법무감부 내에 전범과(War Crime Divisions)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51년 11월 16일, 미 제8군 법무부장 핸리(James Hanley) 대령은 그동안 전범과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산군이 미군 6,270명, 한국군 7,000명, 기타 유엔군 130명 등 총 13,400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다.⁷⁶⁾ 이에 대해 공산 측은 미군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완전한 헛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포로우대정책을 엄격히 집행한다고 반박하면서, 미군이나 영국군 포로 등으로 하여금 포로우대 진술기사를 연이어 발표했다.⁷⁷⁾

73)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포로정책 연구, 223면, 238면: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118.

74) 이기봉, 『장백산에서 임진강까지』, 1987; 이기봉 증언, 1994. 11. 11; 박진홍, 『돌아온 패자』, 70면.

75) 정경호(귀환 포로)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2. 8. 7; 육본, 『포로수용소』, 58-66면.

76) 정성관, 『판문점비사』, 평문사, 1953, 60-63면.

77) 『인민일보』 1951. 11. 20, 21, 27, 30, 12.1.

(2) 수용소 시기 사망자와 매장지

유엔군 측은 공산 측의 포로 학대를 항의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미군과 영국군 포로들을 동원해 포로의 우대를 선전했다.⁷⁸⁾ 선전에 동원된 한 포로는 “포로가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식사는 물론 겨울옷도 만족하게 공급되고 있다. 나는 공화국정부의 관대한 정책에 감사한다”⁷⁹⁾고 했다. 그러나 영구수용소에서도 국군과 유엔군포로들은 많이 희생되었다.

공산 측은 국군과 유엔군이 포로로 잡힌 후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오직 미국의 비행기 폭격과 사격을 받은 경우라고 반박하였다. 그들은 미군과 영국군포로 등으로 구성된 ‘전쟁포로평화위원회’를 통해 미 공군의 폭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군의 폭격에 의한 유엔군포로 중 일부가 희생된 것은 사실이었다. 일부 탈북포로들은 공산 측이 포로수용소(P.W.)라는 대공표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억했으나, 강동 제8수용소에서는 포로수용소라는 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격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⁸⁰⁾

공산 측에서 주장한 사례로 1951년 2월 19일 미군 공습으로 미군포로 19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4월 22일 미군 포로 32명이 죽거나 사망하였으며 10월 31일에도 미군과 영국군포로 및 주민 21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⁸¹⁾ 1951년 11월 17일 북경방송은 유엔군의 폭격으로 유엔군 포로 6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⁸²⁾ 강동 제8포로수용소에서는 1952년 1월 14일 미군의 폭격에 의하여 15명이 즉시 사망하였고 1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52명이 경상을 당했다고 판문점 휴전회담에서 항의하

78) 『주평양신화통신문』 1953. 8. 8, 11.

79) 『로동신문』 1950. 12. 11.

80) 신창균, 『북한 11포로수용 생활수기』, 2004. 4. 8; 박진홍, 『돌아온 패자』, 134면; 해병대3·4기전우회, 『참전실록』, 2002, 374면.

81) 『인민일보』 1951. 11. 1, 18.

82) “Daily Korean Bulletin” Nov. 17, 1951, Intelligence Report of the CIA(『한국전쟁 자료총서』 17), 국방군사연구소, 1997, p. 164.

였다.⁸³⁾ 제12수용소에서도 미군의 오폭에 의해 1952년 7월 11일에 83명이 희생되었고, 1953년 2월 23일에도 53명이 살상당했다고 주장했다.⁸⁴⁾

도로, 터널, 건물 등의 복구공사에서도 희생된 경우가 있었다. 포로들은 작업장에서 하루에 10여 시간씩 동원되는 동안 사고사로 죽거나 다친 경우도 많았다. 언제 미 공군기의 폭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해야 하는 탄약 하역이나 비행장 복구작업은 매우 위험했다. 사리원역에서 국군 포로와 동원된 북한주민 약 300명이 어느 날 밤 1시쯤 탄약 하역작업을 하다가 아군의 야간 폭격에 의해 절반 이상이 죽고 탄약은 전소되었다.⁸⁵⁾

평양 인근에 노동부대로 제502부대, 제980부대(신안주), 제988부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이 노동부대에서 일부는 정규부대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이 중 제502부대는 1개 중대에 300명씩 4개 중대로 편성되어 철도·도로·교량 등을 복구하고 의주비행장 건설작업을 했으며 사리원에 있는 중대는 방공호건설과 탄약작업을 했다고 한다.⁸⁶⁾

제218부대는 항공사령부 직속 건설연대로 평양, 신의주, 황해도 온천과 황주 등의 비행장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1952년 초, 제218군부대 포로들이 평안북도 영변군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최고사령부 직속 제22여단에 배속되었다. 영변에 있던 '조선인민군 제22여단'은 1951년 10월 초 창설됐으며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로들이었다.

하지만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많이 희생된 주요 원인은 이질, 발진티푸스, 결핵 등 질병이나 영양부족이었다. 포로들은 무엇보다 괴로운 것이 배고픔이었다고 기억했다. 한 끼에 잡곡밥 한 줌 정도, 부식은 소금물로 하루에 두 끼 식사로 야맹증, 각기병, 이질이 많이 발생하여 포로들이 많이

83) 한 귀환포로는 강동 제8포로수용소 장교 막사에 미군의 폭탄이 떨어져서 25명이 즉사하였으며, 이때 육군 제7사단 모 연대 부연대장도 희생되었다고 기억했다(박진홍, 『돌아온 패자』, 134면).

84) 『로동신문』 1952.1.17; 『동아일보』 1952.1.14; 김소민, 「포로수용소 방문기, 외곡할 수 없는 진실」, 『로동신문』 1953.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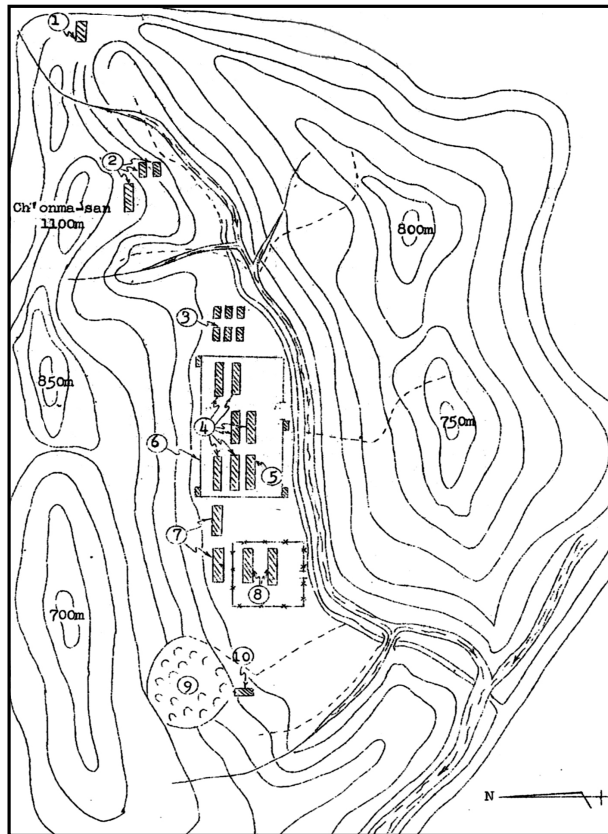
85) 육군본부, 『포로수용소』, 119면.

86)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3, 312-316면; 육본, 『포로수용소』, 75-118면.

희생되었다.⁸⁷⁾ 유엔군포로들도 혹한, 음식 등에 적응하기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여건은 휴전협상이 시작된 1951년 중반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제1수용소에서도 400명이 넘는 포로가 사망했으나, 정확한 매장지를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⁸⁸⁾ 벽동수용소에서는 미군과 영국군 포로의

〈지도 3〉 제7수용소 스케치(김종수 중령 진술, 매장지: 9번)



87) 신창균, 「북한 11포로수용소 생활수기」(미발간 메모), 2004. 4. 8.

88) "Camp 1 Burial Site Location", <http://www.koreanwar.org/html/units/pow/camp1.htm>;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p. 9.

증언에 따르면 1951년 봄과 여름 사이에 발진티푸스, 결핵 등 질병으로 포로들이 매일 15명에서 20명씩 죽었다고 했다. 국군포로들도 하루에 많게는 50여 명, 적게는 20여 명이 사망하였다. 이 시기에 유엔군 포로들만 약 1,400명이 매장되었다.⁸⁹⁾ 수용소 동북쪽 언덕에 7곳의 매장지가 있었다. 포로들은 사망자들을 소달구지에 싣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시체 위에 돌을 올려놓았으나, 겨울에 언 땅을 팔 수 없을 때에는 눈을 파서 시신을 덮고 올 때도 많았다.⁹⁰⁾

귀환한 김광연 중위의 증언에 따르면, 제7수용소에서 국군포로들은 티푸스, 이질, 결핵, 폐렴, 인플루엔자 등으로 478명이 사망했다.⁹¹⁾ 묘지는 <지도 3>에 표기된 것처럼 수용소 남서쪽 40미터에 있었다. 또 다른 귀환포로인 오수겸의 진술에 의하면, 수용소에서 500미터 떨어진 골짜기에 묘지가 있었다고 했다.⁹²⁾

1951년 7월 강동 제8수용소에서 영양부족 상황에서 발진티푸스로 어느 동에서는 80명 가운데 40명이 죽고, 어느 동에서는 70명 중 17명만 남았다고 한다.⁹³⁾ 영국군포로도 강동수용소에서 1950년부터 1951년 여름까지 약

89) 조성훈, 「미귀환포로」,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1, 군사편찬연구소, 2001, 344-345면; David Mc K. Rioch, Army Medical Service Graduate School, "Report of Temporary Duty in Japan and Korea Apr. 14 to Jul. 17, 1953", 1/338;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p. 115.

90) 박진홍, 『돌아온 패자』, 91-92면; 안소니 파라-호커리(김영일 역),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301면;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2: Raymond L. Mendell, Jr. Sgt" May 20, 1954, 7/319;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6" July 9, 1954, 7/319; 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pp. 140-141.

91) 오용일, 『천마수용소』 하, 94-100면;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lligence Report Files(PROKAP Interrogation Report Nos. 1 thru 155), 1953, 군사편찬연구소, 30-1/338.

92)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김광연, 1953. 10. 12, 36-1/338.

93) 「이기봉씨가 말하는 그때의 포로생활」, 『동아일보』 1990. 6. 25;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3, 310면; 육본, 『포로수용소』, 72-73면; 박진홍, 『돌아온 패자』, 91면; David Mc K. Rioch, Army Medical Service Graduate School, "Report of Temporary Duty in Japan and Korea Apr. 14 to Jul. 17, 1953", 1/338; "Proposed Speech on Korean Atrocities by General Clark to UNGA", Oct. 16, 1953, 25/319, SN 525, p. 10.

250명이 희생되었다고 기억했다.⁹⁴⁾

그런데 1951년 12월 18일, 공산 측은 포로명단을 교부할 때 569명이 수용 중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그 후 전쟁포로송환위원회에서 양측이 수용 중 사망한 포로에 관한 자료를 교환할 때, 공산 측은 국군포로 601명과 유엔군포로 1,050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주었다.⁹⁵⁾ 휴전 후 1953년 10월 3일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알려진 국군포로 가운데 억류 중 사망인원은 868명으로 늘어났다.⁹⁶⁾

유엔군 측이 공산포로와 귀환포로 등의 증언과 첩보를 토대로 파악한 이동과정과 수용 중에 사망한 아군포로 규모는 1만 명을 넘었다. 즉 '죽음의 행군'과 수용소에서 사망한 포로는 한국군의 경우가 행군에서 710명과 수용소에서 7,624명으로 총 8,334명이었고, 미군이 행군에서 959명과 수용소에서 5,178명으로 총 6,137명이었으며, 그 외 유엔군의 사망자를 합쳐서 전 유엔군의 포로는 행군에서 1,756명이 사망하였고, 수용소에서 13,174명이 사망하여 총 14,930명이 사망하였음을 추적하였다.⁹⁷⁾ 그런데 전후 미군 통계에 의하면, 미군 포로 7,190명 가운데 약 3,000명이 사망하였던 것으로 정리되었음에 비추어,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규모는 1만 명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⁹⁸⁾

유엔군 측의 포로 희생자문제에 대한 비난에 대해 공산 측은 유엔군 측이 조작된 학살(faked massacre)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거

94) 안소니 파라-호커리(김영일 역),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286면.

95) 『해방후 10년일지』, 조선중앙통신사, 1955, 195-196면.

96) 국련군총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 「미귀환 영현 명단 송부의뢰」 1957. 10. 29, 국가기록원.

97) HQ, KCZ 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APO 234, 「포로송환에 대한 보고」, 1954. 2. 28, 9-10면; War Crime Division Judge advocate section, Korean Communications Zone, Information extracted from Final Historical and Operational Report, 1954.5.31, Appendix 1, 10/319 CIC.

98) "POWs MIAs: Status and Accounting Issues", June 1,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http://fas.org/sgp/crs/natsec/RL33452.pdf>; Raymond B. Lech, Broken Soldier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and Chicago IL, 2000, pp. 1-2. 한국 전쟁 중 미군 포로의 사망률은 43%에 이르러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군 포로수용소에 미군 사망률 4%, 일본군 수용소에서 미군포로 사망률 34%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꾸로 거제도 유엔군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공산포로의 희생자 사건에 대해 항의하였다.⁹⁹⁾ 귀환포로들의 증언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많은 포로들이 희생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 후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포로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기 시작했다. 19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된 후 1951년 12월 포로명단이 교부되면서 공산군 측은 포로의 선전가치에 주목하여 수용소에서 대규모 사망자는 없앴다. 1951년 12월 이래 판문점에서 양측 포로들에 대한 서신 교환이 이루어졌다. 포로가 된 딘(William F. Dean) 소장도 자신의 편지를 12월 24일 유엔군 대표에게 보낼 수 있었다.¹⁰⁰⁾

4. 국군포로 사망자의 유해 발굴 전망

“국가를 위해 싸운 자들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국가적인 의무차원에서도 미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는 유골도 귀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북한 측은 휴전협상 당시는 물론이고 정전 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줄곧 국군포로를 전원 송환하였던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상병과 일반 포로교환 후, 유엔군과 공산 측은 195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신 교환을 하였다. 이때 포로가 된 후 억류 중 사망한 포로의 수로 공산 측이 1953년 8월 13일 598명, 8월 20일 3명, 10월 3일 268명 등 총 868명을 통보했고, 그 가운데 인도한 시신은 606명에 그쳤다.¹⁰¹⁾ 그러

99) 「박현영 성명」, 1951년 11월 19일, 「소련 극비 외교문서」 4, 137면 : *New York Daily Worker* Nov. 18, 1951 : China Information Bureau, Press Administration, Daily News Release, Nov. 19, 21, 22, 28, 1951. 미군 포로 중 일부는 공산군에 살해되었다기보다는 혹한에 삶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100) 「도쿄 유엔사령부에서 국방부로」 1952. 10. 18, SN 1867(5)4 : 윌리엄 F. 딘(김희덕 역), 『딘 장군의 수기』, 창우사, 1995, 190면.

101) 육본 부관감실 인사처리과, 「한국군 출신 포로현황」 1958. 7. 31, 육본 기정단.

므로 아군포로의 후방으로 이송과정, 즉 '죽음의 행군'이나 수용소에서 사망한 인원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군 측이 휴전 후 일부 시신만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신 교환규모가 적었던 보다 큰 이유는 북한 측이 전체 포로규모를 상병 포로 471명을 비롯해 10,0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수용 중 사망한 아군 포로 가운데 시신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북한에 묻혀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것이다.

포로의 유해송환 문제도 인도주의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북한 측은 시신 또한 이미 모두 송환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한 포로의 유해발굴을 주장하면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사망한 포로들의 유해발굴 및 교환도 의미있는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장래 포로의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할 때, 휴전협상 중 수용소에서 사망한 포로 가운데 탈출시도 혹은 수용소 당국에 저항하다가 처형된 포로들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리전투에서 포로가 된 제7사단 8연대 부연대장 박용복 중령은 포로가 된 후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그는 탈출을 기도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므로 탈출하려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상은 알 수 없다.¹⁰²⁾

또한 휴전 후 억류된 국군포로 중 노동 중이거나 탈출하다가 사망한 인원에 대해서도 우선적 배려 대상이나, 북한 정부의 협조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탈북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103건설여단에 배치되어 있던 변을규는 탈출을 기도하다가 13년형을 받았으나 1957년경 평양 승호리 임시교화소에서 재차 탈출하려다 체포되어 무기수 독방에 수감 중 사망했다. 철도사령부에 배치된 후 1952년 3월 초 백천(청)기 소위가 주동이 되어 김병만, 손서(성)호(경주, 상등병), 이동락 등 40여 명과 '대한반공투사단'을 결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곧 발각되어 단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일반 단

102) 오용일, 『천마수용소』 상, 246-247면.

원들은 '민족반역 반동죄'로 5년형을 받고 평남 덕천군 특별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만포교화소, 아오지 제1교화소 등을 거쳐 1957년 1월 5일 조기 석방되었다. 이는 1956년 12월경 김일성이 전후 복구공사에 인력이 필요하니 교화소 수감자 가운데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조치를 내린 결과였다. 하지만 백청기 소위는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병사했고, 김병만은 신의주학생의거와 관련된 사실이 추가로 탄로나 20년형을 언도받아 수감중 병사했다고 한다. 제584부대에 배치된 백남선은 1955년경 국군포로 7~8명과 함께 평을 잡으러 간다며 부대를 이탈한 후 한국으로 탈출을 기도하다가 검거되어 군사재판에서 반역죄로 3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1959년 3월경 아오지 탄광에 있던 백남훈(운)은 갯에서 분출하는 가스를 담뱃불로 발화시켜 폭발시켰다. 이 사고로 36명이 사망했고, 그는 공개 처형되었으며 관련자 30~40명은 정치보위부로 끌려간 뒤 행적을 알 수 없다고 한다.¹⁰³⁾

따라서 주요 전투지의 유해발굴을 시도하면서 잘 알려진 벽동수용소, 천마수용소 등 수용되었던 국군포로의 인원이 많았고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던 수용소를 우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의 경우도 희생자가 많았던 운산, 장진호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포로의 매장지는 전투지보다 수용소 인근 주민의 증언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협조한다면 그들의 관련 문서 획득과 생존한 국군포로의 현지 방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당시 사망한 포로들은 수용소 옆 계곡에 묻을 때, 이름과 연령을 쓴 나무 꺾말을 세워준 경우도 있었다¹⁰⁴⁾고 하나, 겨울에 사망한 포로들은 언 땅을 파지 않고 계곡에 버린 수준이었다. 4월 해동기에 다시 땅을 파서 여러 구를 함께 묻었다고 한다.¹⁰⁵⁾ 그런데 계곡에 있었던 포로들의 묘지들은 오랜 세월이 흐

103) 조성훈, 「한국전 국군포로 실태분석」, 106-107면. 2006년 탈북포로와 면담 후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04) 김원복 증언, 한솔희 월례모임, 2010. 2. 17;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장세호, 36-1/338.

105) 박진홍, 『돌아온 패자』, 91면; 오용일 증언, 2010. 4. 27.

르면서 홍수에 휩쓸려 나갔을 가능성도 크다.¹⁰⁶⁾ 더욱이 포로가 되면서 증명서·인식표 등을 버렸고,¹⁰⁷⁾ 수용 중 포로들이 사망할 때 입었던 옷도 벗겨 나누어 입었기 때문에 아무런 유품도 남아 있지 않아서 유전자 확인 등의 기법을 동원한다 해도 신원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장래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주요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포로의 유해발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포로수용소 위치, 각 수용소별 사망자 및 매장지 등에 대한 정보교환, 현장 조사, 이에 따른 유해발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원고투고일 : 2010. 3. 31, 심사수정일 : 2010. 5. 3, 게재확정일 : 2010. 5. 10)

주제어 : 포로대우, 국군포로, 북한군 편입, 건설대, 죽음의 행군, 수용소 위치, 벽동수용소, 천마수용소, 매장지, 유해발굴

106) "US POW/MIA Team searched for remains in north Korea"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July 18, 1997.

107) 일부 군번줄을 가지고 있던 포로들이 사망했을 때에는 동료포로들은 이를 회수하여 숨겼다(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p. 140).

<Abstract>

A Study on the Condition of POW Camps in North Korea and the Excavating Possibilities of the ROK POWs' Deads during the Korean War

Cho, Sung-hun

This article is to study focusing on the location of POW camps, size of war deads in the camps, and their burial places in order to progress the projects of excavating ROK POWs' deads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In the dimension of a national duty saying that "the people who fought for the country, the country will secure them for good", it is desirable thing that war deads as well as still living people in the ROK POWs should be return home country. But the North Korea (NK) will insist that the war deads in the camps already repatriated. If the Republic of Korea (ROK) Government will insist that the war deads in the camps will be excavated, NK will be deny the same way as the surviving people.

When the POWs' deads exchange between the United Nations (UN) side and the Communist side right after the Armistice, NK repatriated 606 war deads among ROK POWs deads in a little scale. Although the war deads increased during 'death march' or in the camps, they must be returned a part of those war deads. Another distinguished reason of a small scale of war deads' exchange, NK made greatly a small size of 10,000 for a total POWs and complemented the POWs to the NKPA and NK citizens,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size of 100,000 POWs of the ROK and UN which was announced by the NK General Command in June 1951. And so, many war

deads died in the camps and buried in the NK Area, who were not repatriated are still exist probably.

Thus, in order to excavate the ROK POWs' deads, the Byeogdong POWs Camp, Cheonma POWs Camp, etc. where were known as camps with so many ROK POWs and died those places will be needed in priority. In case of US war deads' excavation, the places such as Unsan, Jangjinho areas where were the many US casualties were occurred. In the future, if it will become a better situation between the NK and ROK relationship, and more progress will make good results about the excavation of ROK POWs' Camp deads, we will need to find information exchange and field investigation about finding the places of POWs where were not confirmed, number of war deads and burial places, and also need to extend the projects of excavation about POWs deads.

Key Words : POWs Treatment, ROK Pows, NKPA Complement, Construction Unit,
March of Death, Location of POWs Camp, Byeogdong POWs Camp,
Cheonma POWs Camp, Burial Places, War Deads Excavation